

2026-1호
(2026. 7월 셋째주)

정책 동향

◆ 국정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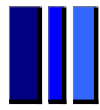
◆ 도정 동향

◆ 타시도 동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https://council.jeonnam-gwangju.go.kr> / 061-286-8282



목 차



I. 국정 동향 1

- ① 【법 제 처】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1
- ② 【행정안전부】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1
- ③ 【국토교통부】 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 한눈에.; 정부-민간 연계건축 찾걸음 ... 2

II. 도정 동향 3

- ① 【언론담당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기념 ‘AI 관-텐츠 오디션’ 이벤트 ... 3
- ② 【돌봄정책과】 전남광주 통합돌봄 신청 ‘전국 최다’ ... “의무방문 통했다” ... 4
- ③ 【식량원예과】 AI 영농형 태양광 스마트팜 실증 착수 5

III. 타시도 동향 5

- ① 【강원도】 여름철 폭염 취약 노인 냉방 물품 긴급 지원 5
- ② 【전북도】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으로 저출생 극복 나서 6
- ③ 【경남도】 우주항공방산 특성화 융합연구원 육성 시동 7

국 정 동 향

1

법제처,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쉽고 빠르게 검토하여 국민에게 한층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법제 지식과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AI·전자정부 기술력으로 'AI 법령 비서'를 공동 개발하고, 7월 14일 전 공무원에게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힘.
- 이번 서비스는 AI로 인해 공무원의 법령 검토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 제작된 서비스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이용하여 답변을 생성 하도록 개발하였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공무원은 '온AI 실험실'을 통해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자신의 업무에 즉시 활용해 볼 수 있음.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우리의 고유 문화·역사를 반영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의 디지털 인프라(클라우드 등)에서 우리의 기술력으로 만든 AI 모델
- 'AI 법령 비서' 서비스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및 판례를 기반으로 정책 기획·입안 집행 과정의 법적 질문에 응답하는 기능을 제공함.
- 정부는 공무원들이 AI 서비스를 더 쉽고 다양하게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수적인 AI 지식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

2

행정안전부,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7월 20일(월)부터 12월 14일(월)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음.

-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매년 실시되는 정기 조사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복지, 재난관리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
- 먼저, 7월 20일(월) 9시부터 9월 7일(월) 24시까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9월 8일(화)부터 11월 9일(월)까지는 아·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방문 조사를 실시함.
- 비대면 조사는 위치 확인을 위해 PC를 통해서는 참여할 수 없으며 모바일 앱 전용으로만 진행되며, 비대면 조사 기간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됨.
-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임.
- 특히,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의 사실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활용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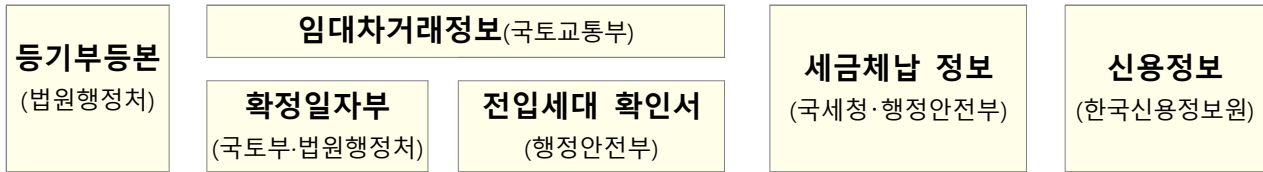
* 장기 체납 등 위기 징후 정보를 통해 선별된 대상자 중 연락 두절 등 사유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요청한 세대

3

국토교통부, 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 한눈에..; 정부-민간 연계구축 첫걸음

-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 경기도,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과 7월 14일 서울에서 「임대차 통합 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구축 중인 선순위 권리정보 기반 위험 진단 서비스를 향후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준비 등 초기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등기,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거래정보, 건축물정보, 체납정보 등 흩어져

있는 정보를 연계·분석하여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①예비 임차인 요청 주소 정보 제공 ↑↓ ②대상 주택·임대인 관련 정보 실시간 제공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한 번에 쉽게” 파악·분석 →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 제공
■ (주택 위험도 진단) 대상 주택의 시세와 선순위보증금 등(근저당, 최우선변제금액 등) 간 비교를 통해 위험물건을 회피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임대인 위험도 진단)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건수, 국세·지방세 체납액 및 대출 연체 여부 등을 제공하여 종합적인 위험도를 간접 판단하는 정보 제공

- 이번 MOU를 통해 정부가 구축하는 전세사기 위험진단 정보가 다방·직방·한방·KB부동산·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실생활에 밀접한 플랫폼과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플랫폼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도 정 동 향

1

언론담당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기념 ‘AI 콘텐츠 오디션 이벤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출범을 기념해 13일부터 시민참여 이벤트 ‘AI 콘텐츠 오디션’을 개최함.
- ‘AI 콘텐츠 오디션’은 시민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홍보 콘텐츠를 응모하고, 수상작도 온라인 시민투표로 뽑으며, 콘텐츠 제작부터 응모, 심사까지 전 과정이 시민의 손으로 완성됨.
- 작품 접수는 7월 13일부터 8월 10일까지 ‘모두의 전남광주 누리집’(<https://news.jeonnam-gwangju.go.kr>)에서 진행함.
- 연령·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제는 자유, 통합특별시 출범에 대한 기대와 바람, 앞으로의 변화 등을 AI로 표현하면 됨.

- 접수 분야는 총 4개이며, ▲통합특별시 홍보문구 한 문장을 제출하는 ‘한 줄 ▲AI로 만든 포스터·카드뉴스 등 ‘한 컷 ▲20초~1분 분량의 AI 영상이나 노래 ‘한 편 ▲AI가 아닌 손글씨 · 손그림으로 참여하는 ‘금손’ 분야 등으로 어르신부터 어린이까지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음.
- 시상은 최다 득표작 ‘권 of 권’(상금 50만원)을 비롯해 부문별 1, 2위 등 총 9편을 선정, 수상작 외에도 응모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증정함.
- 수상작은 8월 31일 ‘모두의 전남광주’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며, 이후 통합 특별시 홍보 콘텐츠로 활용됨.

2

돌봄정책과, 전남광주 통합돌봄 신청 ‘전국 최다’...“의무방문 통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월26일 기준 전남광주지역의 노인 1만명당 통합돌봄 신청자 수가 93.3명에 달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 전남광주지역에서는 지난 3월 통합돌봄 시행 이후 100일만에 총 7,295명이 서비스를 신청, 통합돌봄 신청자 수가 1만명당 93.3명에 달했음.
- 이는 전국 평균인 41.0명을 두 배 이상 크게 웃도는 수치로, 지역 현장에서 돌봄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제도 접근성을 높인 결과로 분석됨.
- 의무방문 제도는 대상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가정에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생활·건강 상태를 살펴보고, 필요한 서비스를 즉시 제공 및 연계하는 선제적 현장대응 방식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올해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통합돌봄 전담인력 433명을 현장에 추가로 배치할 예정임.
- 이를 통해 읍면동 중심 현장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도움이 필요하지만 제도 접근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선제 대응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3

식량원예과, AI 영농형 태양광 스마트팜 실증 착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농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인공지능(AI) 영농형 태양광 기반 스마트팜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함.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원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관리하는 신재생 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태양광 분야)에 ‘영농형 태양광 기반 탄소배출 제로 AI 연계 스마트팜 기술개발 및 실증’ 과제가 선정됨에 따라 농업 생산과 재생에너지 발전을 융합한 차세대 스마트팜 모델을 구축할 계획임.
- 사업은 ‘26년 7월부터 ‘29년 3월까지 3년간 총사업비 224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며, 정부와 통합특별시가 170억 원을 지원하고 참여기관이 54억 원을 부담함.
- 사업 핵심은 온실 지붕 측면용 투과형 태양광 모듈과 AI 기반 환경·에너지 통합 운영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작물 생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자립을 동시에 실현하는 스마트팜 기술을 검증함.
- 실증은 고품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강진 아토피에서 진행함.
- 통합특별시는 사업을 통해 스마트팜 에너지 비용 절감, 농가 소득 다각화, 농업 분야 탄소저감과 재생에너지 기반 농업 인프라 확산 효과를 기대함.

타 시 도 동 향

1

강원, 여름철 폭염 취약 노인 냉방 물품 긴급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는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온열질환에 취약한 도내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 취약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냉방 물품을 긴급 지원함.

- 이번 지원은 기후변화로 여름철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폭염 일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냉방기기를 갖추지 못했거나 노후화된 냉방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강원특별자치도는 폭염을 심각한 자연재난으로 보고 재해구호기금 3억 5천만 원을 확보했음.
- 이를 통해 선풍기 2,000대와 냉감 이불 2,500세트를 시군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해 어르신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도울 예정임.
- 이번 지원은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가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냉방 물품을 전달하고, 폭염 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과 무더위쉼터 이용 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임.

2

전북,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으로 저출생 극복 나서

- 전북특별자치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저출생 공동대응 릴레이 캠페인'에 지역 기업들의 참여가 이어지며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14일 밝혔음.
- 도는 이날 캠페인 참여 기업인 (주)국도특장을 방문해 가족친화 경영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음.
- (주)국도특장은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 대표 기업임.
- 전체 근로자 가운데 31%(15명)가 청년 근로자로 구성돼 있으며, 청년층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특히 매주 수요일을 '가족의 날'로 지정해 전 직원 정시퇴근을 시행하고, 가족친화 직장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음.
- (주)국도특장 대표이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저출생 공동대응 릴레이 캠페인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터에서는 보람을 느끼고 가정에서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족친화 경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음.

3

경남, 우주항공방산 특성화 융합연구원 육성 시동

- 경남도가 교육부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양성 패키지 지원대학(서울대 10개 만들기)' 선정을 향한 경상국립대의 도전에 지방정부 차원의 힘을 보탬.
- 이와 관련해 경상국립대는 14일 가좌캠퍼스에서 UNIST, (주)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과 '우주항공 방산 및 AI 핵심기술 공동연구소' 설립·운영 등 업무협약을 체결했음.
- 세 기관은 공동연구소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방산 및 AI 핵심기술 공동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 연구성과의 산업 현장 확산에 협력하기로 했음.
- 융합연구원은 경남의 항공제조 생태계를 기반으로, 경상국립대의 우주항공 방산 연구기능과 UNIST의 AI 원천기술, KAI의 현장 역량을 하나의 협력 플랫폼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됨.
- 이는 미래 우주항공 방산 기술을 경남에서 연구하고, 그 성과가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임.
- 나아가 이번 협력은 첨단 R&D 네트워크로서 정부의 영남권 첨단산업 육성 흐름과도 맞물려 향후 부울경 우주항공 방산 및 AI 협력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지역인재 양정도 이번 협력의 중요한 축이며, 세 기관은 학위·비학위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모색하며, AI와 우주항공 방산 기술을 함께 이해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 기반을 넓혀갈 계획임.